

으로對面케 된 것은 다시 없는 즐거움이다. 그 사이 혼자 수고를 알아 주신 崔兄과의 再會 또한 반가운 일이었다. 그러나 二年前이 調査를 指導하여 주셨고 이제 그 歸國을 맞아 누구보다 기뻐하실 潤松先生은 다 시될 수 없는 길을 떠나시고 말았다. 지난 十一月一日 展示品이 들어 있는 一室에서 이 菩薩像을 對하여 無事함을 즐거워하면서 또한 感慨無量한 바 있었다. 數年前의 기억을 더듬어 이 小文을 적게 된 것은 이와 같은 追念에서인데 筆者에게는 잊을 수 없는 回顧인 동시에 이 優美한 金銅像研究에 있어서도 작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十一月七日)

註

- ① 拙稿…百濟半跏思惟石像小考(歷史學報)第十三輯一九六〇年十月
- ② 國立博物館 半跏像의 左足部가 元來의 疑心의 餘地가 없으나 그 蓮花紋의 解明이 重要點의 하나임은 德美像에 있어서와 同一하다.
- ③ 德美像 左足의 形態가 新羅統一期 金銅立像의 것과 同式이며 足指의 발톱이 圓形을 이루는 것도 三國時代의 作品이 〇形을 보이는 것과 다른 點이다. 이같은 比較는 德美像의 兩足指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④ 이같은 蓮花紋樣式은 百濟末期作品(例컨대 扶餘窺岩面寺址 出土인 國博藏의 金銅菩薩立像臺座—舊日人庭瀬所藏品—또는 同面出土의 蓮花紋瓦當) 또는 新羅統初의 蓮花紋瓦當이나 石造臺石에서 볼 수 있다.
- ⑤ 千瀨槓治…廣隆寺의 半跏思惟像について上, 下(MUSEUM) 一六, 七號一九六〇年, 十一月二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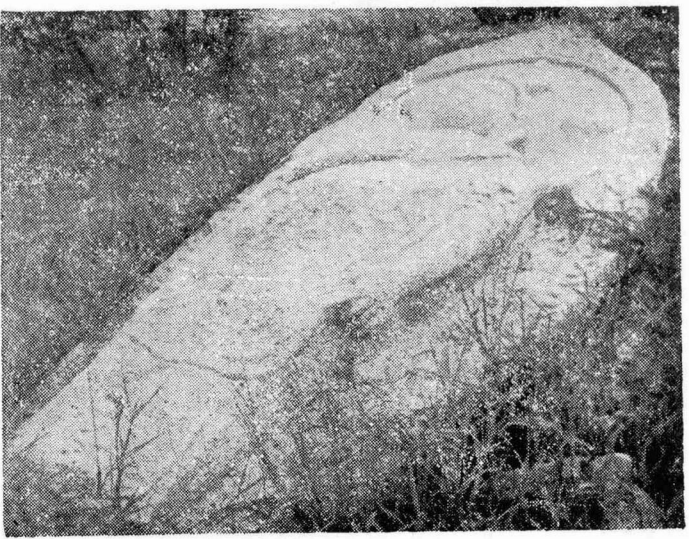
安城 二竹面の 菩薩立像과 臺座

Mrs. Harriet C. Matusch

京畿道 安城郡 教育課를 찾아 職員의 案内를 받아 安城郡 二竹面 竹山里 竹山商業高等學校後庭에 立혀져 있는 光背가 달린 菩薩立像을 調査케 되

었다. 이 佛像是인 學校의 歷史先生인 崔元貞氏가 一九六一年十一月頃 竹山里 서울醫院 옆집에서 담장 속에 들어 있는 것을 發見하고 더 잘 보존하기 위하여 即時 現位置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顔面은 若干 破損되었다. 古蹟 및 藝術品의 目錄作成을 責任맞고 있는 同郡 教育課職員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佛像의 表面一部를 떼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나 또는 他液體에 混合 服用하면 私生兒를 落胎하게 된다는 믿음이 이 地方 婦人들 사이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흔히 듣고 있는 婦人들이 佛像이나 彌勒앞에 정성을 드러오를 받게 해달라고



된다. 이야기와는 正反對되는 이상한 이야기이다.

光背에는 蓮花座臺위에 앉아 있는 化佛이 三軀있다. 上部의 化佛은 合掌하여 默念하고 있는 모습이며 左側의 것은 降魔觸地의 手印을 하고 있으며 右側의 것은 不確實하다. 光背左右周邊에는 衣裳의 레이스모양의 紋이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으며 最上部에 올라가서 무늬가 굵어지며 얼키어 맨 것같이 보인다.

菩薩像은 約 六·五 cm 두께로 浮刻되어 있으며 頭部는 如來像같은 인상을 주고 목에는 二條線이 있다. 衣裳은 菩薩像의 樣式을 가진 것이 뚜렷하다. 左手는 衣端을 쥐고 있으며 흔히 볼 수 없는 이상하게 주름잡은 法衣로 양쪽 어깨를 덮고 있다. 右手는 가슴 위에 얹어 놓고 있다. (像高는 一八〇 cm, 幅은 九七 cm, 厚 二〇 cm 全高는 二二五 cm 光背徑 二二 cm) 이 彫刻品을 뒤집어서 裏面은 보지 못하였지만 아마 거칠을 것으로 생각한다. 二次訪問時 同行하여 實測한 申榮勳氏의 意見에 의하면 同像의 年代는 高麗를 若干올라 갈 것이라고 한다.

二
同學校에서 나오는 길에 申榮勳氏는 座臺石의 一群을 發見하였는데 이 옆에는 작은 섬이 있는 蓮池가 있으며 竹山里 東部洞이라 불리우는 마을에 있다.

最下石에는 側面에 眼象彫刻이 있고 八角이다. 第二石 역시 八角石인데 五面에는 眼象內에 獅子像이 보인다. 第三石은 돌글머 複瓣伏蓮이 彫刻되어 있고 第四도 역시 圓形이며 二重複瓣蓮花가 조각되어 있다. 第五石 또한 八角인데 樣式化된 蓮瓣이 있어 或은 돌글기도 하고 혹은 모를 내기도 하였다. 第六石은 八角柱이며 第七石은 重瓣蓮花紋을 들린 八角形이다. 이들은 적어도 二個以上の 座臺가 不規則하게 混合되어 쌓여져 있는 것인데 近處에서는 其他 遺品을 發見하지 못하였으며 間議한 사람도 없었다.

三

郡廳當局이 考古美術에 屬하는 對象物과 가장 緊密한 關係에 놓여 있는 事實에 비추어 그들과 體系的인 連絡을 圖謀하여 國內各地方에 散

在한 모든 遺跡들의 完全한 記錄을 入手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本人(馬鬪樹夫人)은 崔德純氏와 여러차례 經驗한 바이지만 특히 奉化 같은 곳에서는 훌륭한 座佛 및 其他의 彫刻品에 對하여 이들 郡教育課에서 目錄과 圖版이 作成整理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英文翻譯·崔德純氏)

母子曲玉의 一例

朴敬源

一
昨年 여름 扶餘에서 出土한 母子曲玉은 서울大學 博物館에 收藏되었는데 그 經緯와 거기에 對한 金元龍氏의 解說은 本誌 第二卷 第十號에 發表된 바와 같다.

筆者는 旬餘前 釜山市 富平洞 所在 金某氏의 所藏品中에서 偶然히 母子曲玉 一個를 보았는데 金氏는 約 五年前 晋州市內의 骨董商에서 이것을 購入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出土地에 對하여는 아무런 根據도 없는 것이나 흔히 볼 수 없는 遺物이므로 簡單히 紹介하기로 한다.

二

이 曲玉은 全長 六·八 cm 胴體의 最大두께 一·七 cm의 크기로 滑石이나 蠟石보다는 硬度가 높고 黑斑이 섞인 灰色의 石材로 만들어졌는데, 一側面은 이 黑斑이 全面에 나타나서 灰色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거스레한 黑色에 가까운 色彩를 띄고 있어 大理石의 一種이 아닌가도 疑心된다.

全體의 形態는 曲線이 펴 洗練된 便이고 背面 中央에 한개와 腹部에 五個의 小曲玉이 突出되어 있다.

扶餘 出土品과 다른點은 兩側面에는 「子玉」이 없고 또 腹部의 끝에 있는 「子玉」은 完全히 「꼬리」의 形態를 가져어서 扶餘 出土品보다 한층